

## 수로부인 해가사 설화

그리고... 또 이를 더 가다가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납치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본 한 노인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은 무쇠도 녹인다고 하니,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연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정공이 그 말을 따르니 바다에서 용이 부인을 모시고 나와 버쳤다. 순정공이 바다 속의 일을 물으니 부인이 답하기를, ‘월보 궁전에 음식물들은 맛있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수로부인은 절세미인 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뜻을 지날 때마다 신들에게 불집강했던 것이다. 여기서 백성들이 수로부인을 구하려고 부른 노래가 해가사이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네 만약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앗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네 만약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 입장료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원	2,000원	1,500원
단 체	2,000원	1,500원	1,000원

\* 단체: 유료 관람인원 30명 이상

### 요금감면

관람요금의 50% 적용 (신분증확인)

- ① 삼척시민
- ②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 ③ 65세이상인 사람

### 요금면제

신분증확인, 관련법령에 따른 증명서 확인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3급은 보호자 1명 포함)
- ②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소지자
-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⑥ 6세이하 어린이

### 관람시간

\* 정기휴무일: 매월 18일 (18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3월 ~ 10월	09:00 ~ 18:00 (매표마감 17:00)
11월 ~ 다음해 2월	09:00 ~ 17:00 (매표마감 16:00)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3-17

\* 문의: 033-576-0589

삼  
체  
생태도시

##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

# 수로부인 현화공원

Surobuin Floral Tribute Park

“동양 최대의 조각상!”



삼 척 시  
SAMCHEOK CITY

## 수로부인 현화가 설화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도중, 바닷가에 당도해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옆에는 들산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서 그 높이가 천장이나 되고 그 위에 탐스런 진달래꽃이 흥뻑 피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진달래꽃을 보고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꽃을 꺾어다가 날 줄 사람이 그래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절벽 위에 핀 꽃을 꺾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사람이 올라 갈 데가 못됩니다.” 하며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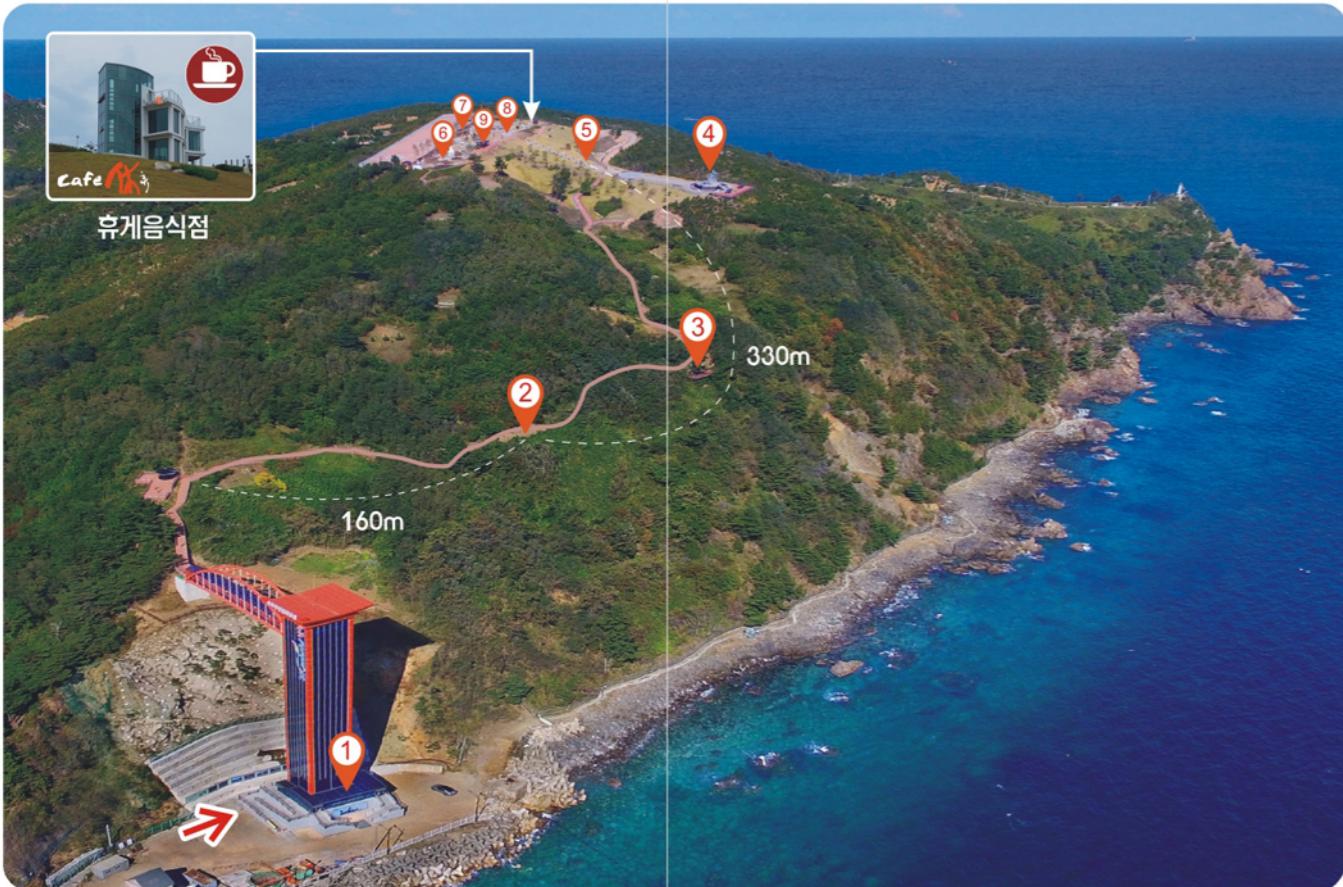
그때 마침 어떤 노인이 암소를 끌고 그 곁을 지나다가 수로부인의 말을 듣고 절벽위의 꽃을 꺾여주면서 노래를 지어 바쳤다. 그 노래가 현재 전해 내려오는 “현화가”이다.



자줏빛 바윗가에  
암소 집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여 바치겠나이다

# 수로부인 현화공원

『삼국유사』 2권의 <기이> 제2 '수로부인조'에 절세가인 수로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현화가' 와 '해가사'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로부인 설화의 배경은 실직국의 중심인 동해안을 무대로 하고 있어, 지난 2003년도 삼척시 증산해변에 '해가사의 터'와 '임해정'이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곳 원덕읍 임원리 남화산은 현화가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현화가' 와 '해가사'에 나오는 수로부인 이야기를 천연석재를 이용하여 현대적 조각품으로 재현함으로써 수로부인 설화는 끊임없이 계승되고 살아있는 전통이 될 것이다. 또 남화산 꼭대기에 조성된 수로부인 현화공원은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해맞이 명소로 유명했던 곳이다. 임원항에서부터 공원 정상까지 올라가는 산책로는 걸어서 20여 분이 소요되고 입구에는 높이 51m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보다 편하게 경사진 지역을 오를 수 있다. 산책로 중간 중간에 휴게데크가 마련되어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유명하다.



수로부인 현화공원



## ① 엘리베이터

수로부인현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51m 높이의 엘리베이터로 동해 바다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 ② ③ 바다전망대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산책 중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 ④ 수로부인상(像)

신라시대 절세미인인 수로부인을 오색대리석을 손수 깎아 만든 조각상으로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의 1.5 배 크기에 달하는 초대형 조각상이다.



## ⑤ 해가를 부르는 군중상(像)

수로부인이 해룡에게 납치당했을 때 해가를 불렀던 군중들의 모습으로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 노래를 부르는 설화 속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 ⑥ 수로부인 포토존

단아하고 기품있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된 수로부인 흉상은 가까이에서 수로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늠할 수 있게 한다.



## ⑦ 십이지신상(像)

땅을 지키는 12지신상의 나무조각상으로 정교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곳이다.



## ⑧ 순정공상(像)

해가사와 현화가 설화의 주인공인 수로부인의 남편인 강릉태수 순정공으로 강릉태수 부임행차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 ⑨ 현화정

맑은 날에는 동해 멀리 울릉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정자로, 탁 트인 바다의 풍경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